

폭폭 찌다 퍼붓다...해남,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 '총력'

10월15일까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집중 관리 냉방비 지원 선지급·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도

해남군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 구축해 산사태·하천 재해 등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폭염재난 대책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 등 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부서·기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장마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장마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

소, 소하천 272개소, 급경사지 81개소 등에 관리상태 점검을 마쳤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등도 실시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책도 시행한다.

해남군은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부서, 2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저감 시설 확대 설치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내 무더위 쉼터 36개소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온도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으며, 냉방비 지원도 선지급해 냉방기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늘막 29개소, 쿨링포그 8개소 등 폭

염저감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스마트 그늘막 1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폭염 특보 등 무더위가 본격화되면 도로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노면 변형을 막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도

심 시가지 위주로 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풍기 60대, 모자 500개를 배부하며, 무더위쉼터에도 생수 2만3천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기상특보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 대비체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최근 북평면 목동 마을을 찾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그늘막 운영 현황 등을 살피며,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의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상 상황을 잘 살피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전남 서부권 산재·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더 크다”

목포시 현황 분석, 산업재해율 동부권비 0.33%p ↑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편의비용 1.7 산출

목포시가 산업재해 현황 분석, 국가 통계포털 등의 최근 정부 공식자료 분석을 토대로 전남서부권 의대유치 주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2년 산업 재해율 분석 결과 전남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49개 지방관서 중 목포시

청 관할 9개 시·군 재해율 순위는 8위, 수치는 0.92%로 여수지청 관할 시·군 평균인 0.59%, 전국 평균인 0.65%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수는 동부권이 서부권보다 1.7배 더 많지만 재해율은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0.33%p 더 높았다.

근골격 질환을 많이 겪는 농어가 인구도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2만8천833명 더 많아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의 지난 34년간의 의과대학 유치과정도 알렸다. 1990년부터 34년간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 병원 설립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으며, 정부가 진행한 2019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용역 결과 대학병원 설립의 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1.7로 산출됐다.

생산유발효과 2조4천355억원, 고용

유발효과 2만3천355명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립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전남 서부권의 국립목포대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전남 서부권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동부권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 전남대학교병원 여수 분원, 화산전문병원 설립, 순천의료원 증축 등을 통해 도민 전체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출산가정에 국가유공자 예우 마땅”

박우량 신안군수, 공로패 전달 격려

신안군은 “최근 박우량 신안군수가 암태면의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공로패를 직접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문제가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난 상황 앞에서 출산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출산공로패는 저출산 시대 지역사회에 큰 축복을 안겨준 부모에 대한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난 4월11일 신안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대상자는 신안군 실거주자다.

출산공로패를 받은 한 가정은 “출산과 육이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군수가 직접 방문, 격려해주는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박우량 군수는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산 가정들은 국가유공자 처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에너지원에서 '2024년 제4회 영광군 청소년 Green Energy 독서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빛원자력본부 제공〉

“지역 학생 독서 습관·지식 함양 도모”

한빛원자력본부, 영광 청소년 독서대회 시상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에너지원에서 '2024년 제4회 영광군 청소년 Green Energy 독서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광군 청소년 Green Energy 독서

발표대회'는 한빛본부가 주관하고 영광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있는 대회로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지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총 11개교 24팀 88명이 독후감을 제출했으며, 지난 6월21일 예선 심사를 거쳐 6월20일 본선을 가졌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특목튀는 발랄한 아이디어를 보여줬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초등부 7팀, 중·고등부 10팀 총 62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부 대상은 지구를 지키는 발자국을 주제로

한 흥농초등학교 김민영, 이은채, 최지원 학생이 수상했으며, 중·고등부는 예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발표한 백수중 학교 장대원, 정다운, 노수경 학생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한빛본부는 시상으로 부분별 상장과 수상으로 대상 2팀에 각 1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70만원, 우수상 6팀 각 50만원, 장려상 7팀에 각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여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 시장, 백종원과 음식타운 조성 본격화

더본코리아 관계자 오감통 등 현장 방문 사업 구체화

강진군이 110억원 규모의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강진 음식타운 조성사업 구체화에 본격 나섰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역경제활성화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강진군과 더본코리아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기 위해 지난 18일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강진 음식타운 활성화 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본코리아 지역개발사업팀 관계자들은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주변상가를 꼼꼼히 둘러보며 백종원 대표의 강진 발전 청사진을 위한

사전 현장 파악,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청취, 설계 방향 논의 등 그동안 정제됐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현장 방문 후 강진읍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수산동 노후화 외벽 해체 ▲주차장 부지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비가림시설 설치로 날씨 관계없이 사계절 취식 공간 이용 등을 구체화했다.

또 오감통 먹거리장터와 야외무대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장터 리모델링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 ▲강진 특화 메뉴 개발·제공 ▲음식과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외식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생활폐기물 시설’ 불만...야구방망이 위협

민원인, 무안군 소통실서 기물 파손 등

무안군청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무안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A씨가 무안군 소통실을 찾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무안군이 새롭게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소통실장 B씨 집무실의 책상과 책상 위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청 공무원들의 불안감 고조로 한 동

안 업무가 마비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는 악성민원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한 감정적 피해도 고려해 사건의 경중을 떠나 심리 상담 치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은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세계적 힐링 트렌드 만든다”...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범

4개 팀 구성...해양치유센터 등 시설 4곳 관리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최근 출범식을 갖고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 관련 공기업을으로서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21일 밝혔다.

출범식은 해양치유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정식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완

도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완도군에서는 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올해 3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공단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정관 및 규정을 추진

완료했으며, 6월 시범 운영, 7월1일에는 공단 신규 직원 임명식을 갖고 치유시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다.

완도해양치유공단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완도타워 등 시설 4곳을 맡아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할 예정이다.

공단 조직은 경영지원팀 등 4개 팀, 일 반직 12명, 공무원직 25명으로 구성됐다.

이제민 이사장은 “완도해양치유센

터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합 시설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치유 분야의 기술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앞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해양치유산업을 내실 있게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완도 해양치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힐링 트렌드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